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과 관련 변인간의 인과관계 : 아동의  
자기능력지각, 스트레스, 모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The Causal Relations of Children's Learned Helplessness and Related  
Variables : Focusing on the Children's Perception of Self-Competence,  
Stress and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이 경 님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Lee, Kyung Nim  
Dept. of Home Management, Dong-A Univ.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 causal relations of children's learned helplessness, stress, perception of self-competence and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The subjects were 370 of 4th and 6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and the second grade in junior high school in Busan and their's mothers.

The instruments used for this study were learned helplessness scale, stress scal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and childrearing attitude scale.

The data was analyzed with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d path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Children's global self-worth, social self, age and mother's controlling childrearing attitudes predicted children's stress. 21% of the variance of children's stress was explained by these variables.
2. Children's stress, global self-worth, academic and social self predicted children's learned helplessness. 54% of the variance of children's learned helplessness was explained by these variables.
3. 1) Global self-worth was the first contribution and had a indirect effect through stress as well as a direct effect on children's learned helplessness.  
2) Children's stress and academic self had direct effect on children's learned helplessness.  
3) Children's social self had a indirect effect through stress as well as a direct effect on children's learned helplessness.
- 4) Mother's affectionate childrearing attitudes had indirect effect through academic, and social self and global self-worth on children's learned helplessness. Mother's controlling childrearing attitudes had indirect effect through stress on children's learned helplessness. Children's age had a indirect effect through global self-worth and stress and children's sex had a indirect effect through social self on children's learned helplessness.

**Key words :** learned helplessness, stress, self-competence,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 I. 서론

학습된 무력감은 최근 아동 행동과 적응의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자신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며 학습에 대한 의욕을 잃고 사회적인 관계도 위축되어 자발적으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무기력한 아동들은 자신에게 직면한 문제들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대처할 수 없음을 반복하여 경험하게 되면 자신의 반응이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인지가 형성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이리하여 이들 아동들은 자신이 무능하다고 믿고 어떠한 과업에도 성취 기대를 갖지 않아 심할 경우 우울증이나 자살과 같은 심각한 부적응을 초래하게 된다(신기명, 1996). 이와 같이 학습된 무력감의 형성은 아동의 학업 성취와 사회적 적응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학습된 무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학습된 무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과의 관계 연구에서 가장 빈번히 다루어지는 변인들 중의 하나가 자아 평가이다. 자아 평가와 학습된 무력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손낙주와 최보가, 1996 ; 정수자, 1995 ; 최보가와 손낙주, 1998 ; 홍정현, 1990)에 의하면 아동의 자아 평가와 학습된 무력감은 강한 부적 관계가 있다는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아동의 자아에 대한 평가가 낮을수록 학습된 무력감이 높아짐을 보여 부정적인 자아 평가는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 발달의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그런데 학습된 무력감과 자아 평가의 관계를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자아 평가를 하나의 단

일 영역으로 보아 어떠한 영역의 자아 평가가 학습된 무력감에 영향을 주는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즉 자아 평가의 초기에 관한 연구들은 자아 평가를 하나의 단일 영역적 개념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아 평가는 다양한 자아상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다영역적 개념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주장(김희화, 1998 ; Harter, 1988)되어 자아 평가의 영역별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영역의 자아 평가가 학습된 무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아 평가의 한 차원으로 자아에 대한 평가와 감정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다차원적 개념으로 사용되는 자기능력지각의 각 하위 영역과 학습된 무력감과의 관계를 살펴 보고자 한다.

한편, 오늘날의 아동은 가정 및 학교 안팎의 일상생활에서 전 세대의 아동보다 훨씬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Henniger, 1994)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저조한 학업 성취나 부적응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Elkind(1981)는 아동의 스트레스 반응으로, 정서적 불안, 산만한 행동을 지적하고 심할 경우 우울이나 학습된 무력감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신기명(1990)도 고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자신의 가치나 능력에 회의를 느껴 우울하고 무기력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들로 미루어 볼 때 아동의 스트레스와 학습된 무력감과는 중요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 예측되나 국내에서는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과 스트레스의 직접적인 관계를 밝힌 연구는 찾지 못하였다. 학습된 무력감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아가치감은 아동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수준에도 주요한 변인임이 밝히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 즉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과 자아가치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김경자, 1994 ; 박성옥, 이영환, 한중혜, 1996 ; 한중혜, 박성옥, 이영환, 1997)에 의하면 자아가치감이 낮을수록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은 높다는데 일치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전반적 자아가치감은 스트레스 수준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자아가치감, 스트레스와 같은 개인 내적 변인 외에 학습된 무력감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가족 환경 변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지적되고 있다. 학습된 무력감과 부모의 양육행동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지 않거나 애정을 표현하지 않는 거부적 양육태도, 부모와 자녀간의 낮은 접촉 강도는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을 초래하며(손낙주와 최보가, 1996; 정수자, 1995) 반면에 어머니의 수용적이며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을 경감시킨다고 보고(최보가와 손낙주, 1998)되고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의 경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에도 긍정적 영향을 (이경남, 1997; Hater, 1988) 미치며 스트레스 수준을 완화해 주는 효과(윤혜정, 1993)도 있음도 밝혀지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 자기능력지각, 스트레스, 모의 양육태도는 서로 상호관계가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즉,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 자기능력지각, 스트레스와 모의 양육태도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를 종합하면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학습된 무력감, 자기능력지각, 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자기능력지각은 스트레스와 학습된 무력감에 또한 스트레스는 학습된 무력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과 이들 변인들 간에는 서로 상호관계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학습된 무력감과 이들 변인들간의 관계는 각각 분리되어 연구되었으며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과 이들 변인들을 모두 함께 다루어 상호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드물었다. 더우기 학습된 무력감과 이들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도 거의 없었다. 아동 중기나 후기 이후 나타나기 시작하여 아동의 중요한 부적응 행동의 특성으로 빈번히 보고되고 있는(송명자, 1995) 학습된 무력감이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감안할 때 학습된 무력감과 관련 변인들간

의 인과관계 연구는 의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토대로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과 관련 변인의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로 아동의 연령, 성, 자기능력지각 각 하위영역, 스트레스, 모의 양육태도를 선정하여, 이들 변인들이 학습된 무력감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파악하고 특히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 대한 이들 관련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고찰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 대한 스트레스, 자기능력지각, 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주고 나아가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을 증재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규명 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과 자기능력지각, 스트레스, 연령, 성, 모의 양육태도간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학습된 무력감 이론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지각하는 학습된 무력감은 아동에서도 빈번히 나타나는(송명자, 1995) 것으로 보고있다. 무기력한 아동들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환경에 대하여 수동적이며 저조한 학업성취를 보이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위축되어 심할 경우 우울이나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신기명, 1996). 학습된 무력감은 Seligman(1975)의 유명한 무기력 반응 실험에서 유래된다. Seligman은 실험실에서 전기 충격을 피하려는 모든 노력을 좌절당한 개가 결국 수동적으로 고통을 받다가 나중에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달성할 수 없음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환경에 대하여 수동적이 되며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와 행동을 쉽게 포기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학습된 무력감이라 한다. 학습된 무력감이 보이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학습된 무력감을 인간행동을 이해하고 행동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본다. 학습된 무력감의 초기 연구에서는 학습된 무력감을 인간의 우울증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학습된 무력감의 개념을 이용하여 우울증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즉 동물 실험에서의 무기력 증상이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실에서 조작적으로 일으킨 우울증 증후와 유사하다고 보았다. 학습된 무력감 이론을 토대로 우울증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은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Healy, Minors & Waterhouse, 1993). 그러나 초기의 학습된 무력감 이론은 인간의 학습된 무력감에서의 다양성과 개인차를 검토하기에는 불충분하고 개인의 주관적 지각이나 이해와 같은 인지적 요인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의거하여 Abramson, Gender 및 Seligman (1980)은 귀인 이론을 도입하여 이를 보완하였다. Abramson등은 인간의 무력감은 단순한 기제로 설명되기에는 훨씬 더 복잡하다고 보고 실패나 좌절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지 과정 특히 귀인 양식을 매개 변인으로 도입함으로써 좀 더 나은 설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무기력한 아동은 자신의 실패나 좌절을 능력 부족 같은 영속적이고 보편적인 속성으로, 성공은 운과 같은 외부적인 속성으로 귀인 시키기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 자신의 통제와는 상관이 없다고 믿으며 새로운 상황에서도 쉽게 체념을 하고 의욕이나 동기를 상실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귀인 이론에 의한 학습된 무력감에 대한 모형을 토대로 관련 변인간의 관계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관련 변인들 중 아동 개인의 내적변인으로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자기능력지각, 스트레스 및 가족환경변인으로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모의 양육태도를 선정하여 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 관련변인고찰

### 1) 자기능력지각

자아인지에 대한 다영역적 접근의 대표적 개념인 Harter(1982)가 제시한 자기능력지각은 자아에 대한 평가와 감정의 두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스스로 자신이 지녔다고 생각하는 특성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 또는 판단과 가치감을 뜻한다. 자신을 유능하고 가치 있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지각하고 평가하는 아동은 자신의 능력으로 인하여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다. 이 때문에 이들 아동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일상의 문제 해결 상황에서도 높은 효능감을 갖는다. 반면에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에 대한 기대도 낮다고 지각하는 아동은 학업적, 사회적 성취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 결과가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믿기 때문에 환경에 대하여 수동적이 되며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와 행동을 쉽게 포기하여 무기력하게 될 수 있다. 실제로 자기 능력에 대한 평가가 낮을수록 학습된 무력감은 높을 것이라는 가정을 지지해 주는 자아 평가 혹은 자아 개념과의 상관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 정수자(1995)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문적 자아 개념과 학습된 무력감의 강한 부정 상관을 보고하여 학문적 자아 개념이 낮은 중고등학생들이 학습된 무력감이 높다고 보았다. 최보가와 손낙주(1998)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들 대상으로 아동의 낮은 자아 평가는 학습된 무력감에 강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아동의 자아 평가가 학습된 무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Matherly(1985)는 자신에 대해 낮게 평정하는 사람들이 학습된 무력감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Aloyo(1991)는 문제를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낮은 자아 개념과 학습된 무력감의 정적 상관을 보고하였다. 위와 같이 학습된 무력감과 자아 평가 혹은 자아 개념의 관계 연구들에 의하면 자아 평가 혹은 자아 개념이 낮을수록 학습된 무력감이 높게 나타난다는 데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자아 평가 혹은 자아 개념은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 형성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 2)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개인이 신체적 정서적 사건과 같은 이상 자극을 받아 이에 대처하려는 내면적 긴장 상태다. 현대 사회에서는 스트레스가 성인 뿐 아니라 아동에서도 보편화되어(Henniger, 1994)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아동의 적응에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아동도 일상생활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특히 아동 후기에서 청년 초기에 걸쳐 아동은 개인적 또는 사회적 영향으로 인한 더 넓은 인간관계 및 실제 문제에 부딪치게 되고 환경 변화에 민감하므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의 경험은 아동의 문제 행동과 관련됨이 밝혀지고 있다(Haapasalo & Trembly, 1994). 즉, 아동은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이로 인한, 말더듬기, 울기, 피로, 짜증, 두통, 복통과 같은 신체 정서적 반응과 심한 경우 수면장애, 우울과 같은 반응마저 나타난다고 하였다. Elkind(1981)는 아동의 스트레스 반응으로, 정서적 불안, 산만한 행동, 우울함을 지적하고 심할 경우 학습된 무력감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신기명(1990)도 고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자신에 대한 가치나 능력에 회의를 느껴 우울하고 무기력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들로 미루어 볼 때 아동의 스트레스와 학습된 무력감과는 중요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 3) 모의 양육태도

연구에 따라 양육태도의 개념은 포괄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에 따라 그 하위차원도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으나, 많은 연구자들은 부모양육태도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는 두 요인으로써(Erickson, 1963 ; Hetherington & Parke, 1993), 또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양육행동으로써(Rohner, 1986), 통제(control)와 애정(warmth)의 2차원을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적절한 통제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바

람직한 사회화와 성격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Baumrind, 1991)을 준다. 그런데 자녀를 방임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통제는 바람직한 성격 발달이나 성취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연구도 있다(Young, 1993).

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바람직한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변인으로써 자아가치감, 스트레스, 학습된 무력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고 애정적일 때 아동의 자아가치감도 높고(이경님, 1997) 스트레스 수준(윤혜정, 1993)과 학습된 무력감에 부적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손낙주와 최보가, 1996)되고 있어 어머니의 수용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적응에 도움을 준다는데 일치되고 있다. 특히 Rohner(1986)는 모의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어머니가 자녀를 거부하거나 적대적일 때 자녀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자신의 능력으로는 환경이나 주위 인물을 통제할 수 없어 학습된 무력감을 갖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정수자(1995)도 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학습된 무력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최보가와 손낙주(1998)에서도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았지만 아동의 자아 평가라는 매개 변인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 4) 아동의 연령과 성

일반적으로 학습된 무력감은 아동 중기나 후기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보고(Fincham & Cain, 1986)되고 있으나 아동 중기 이후 청년 초기까지의 발달 경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경님(1998)은 초등 학교 4학년,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된 무력감의 유의한 차이를 보고하였는데 초등 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간에 학습된 무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았다. 학습된 무력감의 성차에 관한 연구들(이경님, 1998; Monaco & Gentile, 1987)은 성차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데 일치하고 있다.

#### 5) 아동의 자기능력지각, 스트레스, 모의 양육태도와 학습된 무력감간의 관계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과 자기능력지각, 스트레스와 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관계 연구를 살펴보면,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과 자아 평가와 모의 양육태도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스트레스의 관계, 스트레스와 모의 양육태도간의 관계 등 이들 변인들이 각각 두 변인 혹은 세 변인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중에서 학습된 무력감과 자아 평가의 관계에 관한 연구(손낙주와 최보가, 1996; 정수자, 1995; 최보가와 손낙주, 1998; 홍정현, 1990)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이들 연구들에 의하면 자아 평가와 학습된 무력감간에는 강한 부적 관계가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자아에 대한 평가가 낮을 수록 학습된 무력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의 연구들은 자아 평가를 하나의 단일 영역으로 보아 어떠한 영역의 자아 평가가 학습된 무력감에 영향을 주는 지는 밝혀 내지 못하고 있다. 즉, 최근 자아인지 혹은 자아 평가에 대한 다영역적 접근의 필요성이 주장(김희화, 1998; Harter, 1988)되고 있어 자아의 어떤 영역이 학습된 무력감에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학습된 무력감과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거부적이고 적대적인 양육태도는 학습된 무력감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김성일, 1993; 손낙주와 최보가, 1996)되고 있다. 또한 학습된 무력감의 경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정수자, 1995)되고있는 어머니의 애정적, 수용적 양육태도와 자아평가와의 관계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애정적 수용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긍정적인 자존감을 높인다는데 일관된 결과(이경남, 1997; 김경연, 1987)를 보여주고 있다. 최보가와 손낙주(1998)는 가정환경, 아동의 자아 평가와 학습된 무력감의 인과관계 분석에서 아동의 자아 평가는 직접적으로 강한 부정적 영향을,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아 평가를 통하여 학습된 무력감에 간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스트레스와 학습된 무력감간의 직접적인 관계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찾지 못하였다. 그런

데 Elkind(1981)는 아동의 스트레스 반응으로 정서적 불안, 산만한 행동, 학업 성취의 저조를 들고 과도한 스트레스는 아동의 우울과 학습된 무력감을 야기시킨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지지될 수 있을지를 밝히기 위해 아동의 스트레스와 학습된 무력감간의 직접적 관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전반적 자아가치감의 중요성을 시사한 연구는 많았다. 즉, 스트레스와 전반적 자아가치감에 관한 연구들은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낮은 아동이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데 일치되어(박성욱 등, 1996; 한종혜 등, 1997)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아동의 스트레스와 모의 양육태도의 관계를 본 연구(윤혜정, 1993)에 의하면 모의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는 스트레스 수준을 완화해 주는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이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 자아 평가, 스트레스와 모의 양육태도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이들 변인들 간에는 상호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즉, 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자기능력지각, 스트레스, 학습된 무력감에 영향을 주며 자기능력지각은 스트레스와 학습된 무력감에 스트레스는 학습된 무력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어 이들 변인들 간에는 상호상관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학습된 무력감과 이들 변인을 모두 함께 다루어 상호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들 변인들간의 인과관계 분석에 관한 연구는 필요하다.

### 3.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 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그림 1.에서와 같이 아동의 연령, 성, 스트레스, 자기능력지각과 모의 양육태도간의 직·간접적인 관계에 대한 개념적 인과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1>과 같이 아동의 연령과 성, 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자기능력지각, 스트레스, 학습된 무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기능력지각,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학습된 무력감에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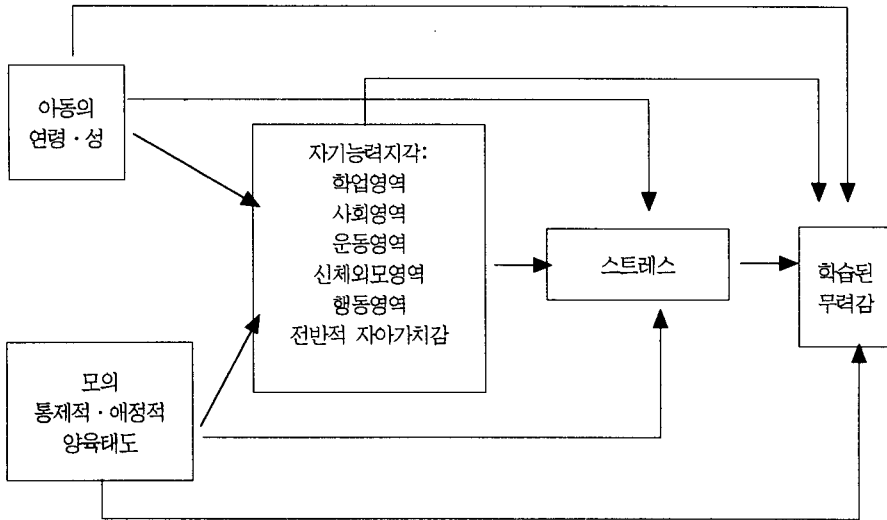


그림 1.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과 관련변인의 가설적 인과 모형

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자기능력지각, 스트레스는 학습된 무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기능력지각은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학습된 무력감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본 연구는 자기능력지각 각 하위영역 중 어느 영역이 스트레스와 학습된 무력감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부산시에 소재한 공립 초등학교인 D초등학교와 G초등학교의 4학년, 6학년 및 공립 중학교인 J중학교와 G여자 중학교 2학년의 370명의 아동과 이들의 어머니 370명 모두 740명이다. 이들 아동중 초등학교 4학년은 127명(34.2%) 6학년은 113명(30.6%) 중학교 2학년은 130명(35.2%)이었으며 남아가 173명(46.9%) 여아

가 196명(53.1%)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31세에서 40세까지가 65.2%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이상이 71.2%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수입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57.1%로 가장 많았으므로 연구 대상은 중류층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대상아동 연령 선정 이유는 첫째, 학습된 무력감은 아동 중기나 후기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고(Finchan & Cain, 1986) 자기능력이나 자신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시기도 아동 중기 이후(Harter, 1988)이므로 초등학교 4학년 이후를 측정의 최적 연령으로 보기 때문이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질문지로서 아동용으로는 학습된 무력감 척도, 스트레스 척도와 자기능력지각척도, 어머니용으로는 양육태도척도와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및 가정의 한달 수입을 알아보는 일반적 문항들로 구성된다.

### 1) 학습된 무력감 척도

학습된 무력감 척도는 신기명(1990)이 개발한 학습 무기력척도중 신뢰도를 떨어뜨리거나 설명력이 낮은 5문항을 제외한 총 42문항을 선정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Type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된 무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하위영역의 문항수와 신뢰도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신감 결여 10문항(Cronbach  $\alpha = .90$ ), 우울 및 부정적 인지 10문항(Cronbach  $\alpha = .89$ ), 수동성 7문항(Cronbach  $\alpha = .75$ ), 지속성 결여 5문항(Cronbach  $\alpha = .67$ ), 과시욕 결여 5문항(Cronbach  $\alpha = .71$ )과 책임성 결여 5문항(Cronbach  $\alpha = .53$ )으로 나타났다.

### 2) 스트레스 척도

스트레스 척도는 유안진, 한미현(1995)이 개발한 '한국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2문항, 4점 Likert Type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하위영역의 문항수와 신뢰도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관련 스트레스 8문항(Cronbach  $\alpha = .73$ ), 가정환경 관련 7문항(Cronbach  $\alpha = .83$ ), 친구관련 7문항(Cronbach  $\alpha = .85$ ), 학업관련 스트레스 7문항(Cronbach  $\alpha = .79$ ), 교사 및 학교관련 스트레스 7문항(Cronbach  $\alpha = .76$ ), 주변환경 관련 스트레스 6문항(Cronbach  $\alpha = .77$ )으로 나타났다.

### 3) 자기능력 지각척도

자기능력 지각척도는 Harter(1985)의 아동용 자기능력 지각검사(Self - 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의 학업, 사회, 운동, 신체외모, 행동 영역의 5개 영역과 전반적 자아가치감을 측정할 수 있는 1개 영역의 총 6개 영역에 각 영역 6문항으로서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아동이 검사지의 오른쪽과 왼쪽에 묘사되어 있는 긍정진술과 부정진술의 두 유형 중 자신과 닮았다고 보는 유형을 먼저 결정한 후 그 유형과 조금 그런지 혹은 매우 그런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각 항목은 1점에서 4점까지의 점수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에서의 자신의 능력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  $\alpha$  계수는 학업 영역 .82, 사회 영역 .74, 운동 영역 .80, 신체 외모 영역 .67, 행동 영역 .60, 전반적 자아가치감 영역은 .75로 나타났다.

### 4) 양육태도척도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김경연(1987)이 제작한 부모의 아동양육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통제적 차원과 애정적 차원으로 구성되며 통제적 차원은 11문항, 애정적 차원은 12문항이다. 통제적 차원의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64$ , 애정적 차원의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71$ 로 나타났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에 소재하는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학교장과 교사에게 연구의 성격과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학습된 무력감 검사, 스트레스 검사, 자기능력지각 검사는 3일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4학년 아동은 담임 교사가 한 문항씩 읽고 응답하도록 하였고,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아동에게는 집단으로 실시되었는데 의문 사항이 있을 때는 자유롭게 질문하도록 허용되었다. 어머니용 양육태도 검사는 학생들을 통하여 배부되었고 어머니가 직접 기입하도록 요청하였으며 학생들을 통하여 회수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 및 백분율, Cronbach의  $\alpha$  계수를 산출하고 연구 문제의 검증을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과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1.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 스트레스, 자기능력



<표 1>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과 관련 변인들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아 동 의 연 령	1.00											
2. 성	.10	1.00										
3. 학업영역자기능력지각	-.12	.07	1.00									
4. 사회영역자기능력지각	-.09	.13*	.33**	1.00								
5. 운동영역자기능력지각	-.12	.21**	.22**	.41**	1.00							
6. 외모영역자기능력지각	-.22**	.14*	.40**	.40**	.34**	1.00						
7. 행동영역자기능력지각	-.12*	.05	.57**	.34**	.22**	.46**	1.00					
8. 전반적 자아 가치감	-.24**	.10	.55**	.54**	.35**	.60**	.60**	1.00				
9. 스 트 레 스	.22**	-.02	-.25**	-.33**	-.19**	-.27**	-.31**	-.40**	1.00			
10. 모의 통제적 양육태도	-.18**	.08	.10	-.05	.00	.11	-.07	.01	.07	1.00		
11. 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14*	-.02	.18**	.11	.03	.22**	.19**	.19**	-.14**	.12	1.00	
12. 학습된 무력감	.17*	-.08	-.55**	-.45**	-.25**	-.40**	-.49**	-.60**	.54**	.05	-.19**	1.00

\*p< .05 \*\*p< .01

지각, 연령, 성과 모의 양육태도간의 인과관계

1) 상관관계 분석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 스트레스, 자기능력지각, 연령, 성과 모의 양육태도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먼저 학습된 무력감은 아동의 자기능력지각 각 하위영역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전반적 자아가치감( $r = -.60, p < .01$ ), 학업 영역( $r = -.55, p < .01$ ), 행동 영역( $r = -.49, p < .01$ ), 사회 영역( $r = -.45, p < .01$ ), 신체외모 영역( $r = -.40, p < .01$ ), 운동 영역( $r = .25, p < .01$ )의 순으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은 자기능력지각 각 하위영역 모두와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전반적 자아가치감, 학업영역, 행동영역, 사회영역, 신체외모영역, 운동영역의 순으로 자기능력지각이 낮을수록 학습된 무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스트레스는 학습된 무력감과( $r = .54, p < .01$ )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된 무력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과 부적 상관( $r = -.19, p < .01$ )을 보였다.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연령은 학습된 무력감과 정적 상관관계( $r = .17, p < .05$ )가 있었다. 즉 아동의 연령이 많을수록 학습된 무력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회귀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직접·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된 인과 모형에 따라 각 변인을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종속 변인과 그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인들을 대상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먼저 오차항의 정규분포를 검증하기 위하여 Durbin - Watson test를 실시한 결과 그 값이 1.93~2.09의 범위로 나타나 잔차간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

〈표 2〉 인과모형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R <sup>2</sup>	F
학업영역자기능력지각	애정적 양육 태도	.11	.18**	.03	11.91***
사회영역자기능력지각	아동의 성 애정적 양육 태도	.82 .07	-.13* .12*	.03	5.68***
운동영역자기능력지각	아동의 성	1.47	-.21***	.04	16.83***
외모영역자기능력지각	애정적 양육 태도	.12	.20***	.10	13.35***
	아동의 연령	.76	-.18***		
	아동의 성	.80	-.13*		
행동영역자기능력지각	애정적 양육 태도	.09	.19***	.04	13.65***
전반적 자아 가치감	아동의 연령	.97	-.22***	.08	16.07***
	애정적 양육 태도	.09	.15**		
스트레스	전반적 자아 가치감	-1.51	-.28***	.21	28.62***
	사회영역 자기능력지각	-.86	-.16**		
	아동의 연령	3.71	.16**		
	통제적 양육 태도	-.34	.10*		
학습된 무력감	스트레스	.42	.33***	.54	106.75***
	학업영역 자기능력지각	-2.04	-.30***		
	전반적 자아 가치감	-1.71	-.25***		
	사회영역 자기능력지각	-.79	-.11**		

\*p &lt; .05 \*\*p &lt; .01 \*\*\*p &lt;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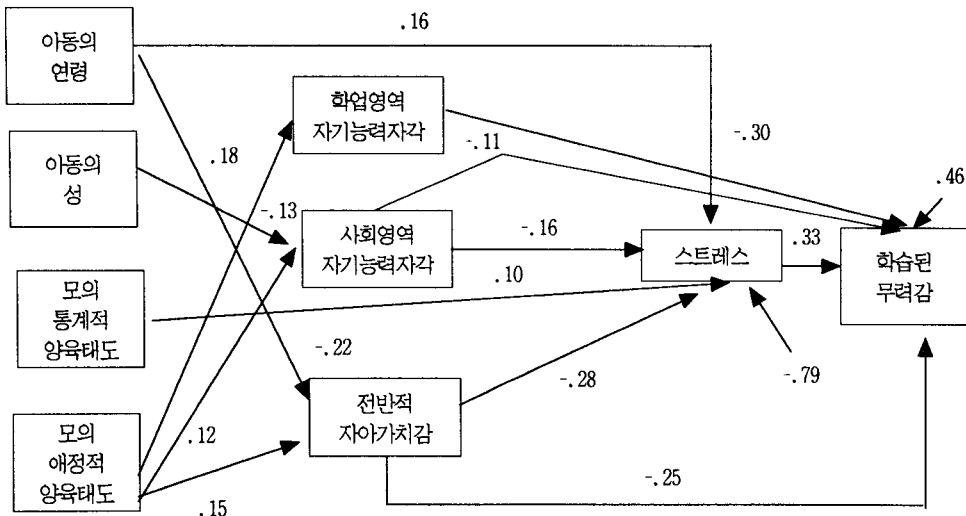
혀졌다. 각 종속 변인별 인과 모형에 따른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아동의 자기능력지각 각 하위변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각각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의 학업영역 자기능력지각은 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높았으며 이 변인의 학업영역의 자기능력지각에 대한 총 설명력은 3% 정도였다. 아동의 사회영역 자기능력지각은 여아보다는 남아가, 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높았으며 이들 변인들의 사회영역 자기능력지각에 대한 총 설명력은 3% 정도였다. 아동의 운동영역 자기능력지각은 아동의 성에 의해 4% 정도가 설명되었으며 여아보다 남아가 더 운동영역의 자기능력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신체외모영역 자기능력지각은 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여아보다는 남아가 높게 지각하였으며 이들 변인들은 신체외모영역 자기능력지각을 총 10% 정도 설명하였다. 아동의 행동영역 자기능력지각은 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높게 지각하였으며 이 변인은 행동

영역 자기능력지각을 총 4% 정도 설명하였다. 아동의 전반적 자아 가치감은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아동이 전반적 자아 가치감을 높게 지각하였으며 이들 변인들은 전반적 자아 가치감을 총 8% 정도 설명하였다. 아동의 스트레스는 아동의 전반적 자아 가치감이 낮을수록 사회영역 자기능력지각이 낮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모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일수록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였으며 이들 변인들은 스트레스를 총 21% 설명하였다.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은 아동이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학업영역 자기능력을 낮게 지각할수록, 전반적 자아 가치감과 사회영역 자기능력을 낮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은 학습된 무력감을 총 54% 설명하였다.

### 3) 경로분석

회귀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 모형에 따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자기능력지각 6 하위영역중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과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그림 2〉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과 관련변인의 인과모형 경로분석 결과

는 것으로 나타난 운동, 신체외모 및 행동영역의 자기능력지각 변인을 삭제하여 모형을 단순화시켰다.

〈그림 2〉에 제시된 것처럼 아동이 지각한 스트레스는 학습된 무력감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 $\beta = .33, p < .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학업영역 자기능력지각은 학습된 무력감에 직접적인 영향( $\beta = -.30, p < .001$ )을 주지만 간접적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동의 사회적 자기능력지각은 학습된 무력감에 직접적인 영향( $\beta = -.11, p < .01$ )도 미치지만 스트

레스( $\beta = -.16, p < .01$ )를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전반적 자아가치감은 학습된 무력감에 직접적인 영향( $\beta = -.25, p < .001$ )도 주지만 스트레스( $\beta = -.28, p < .001$ )를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은 전반적 자아가치감( $\beta = -.22, p < .001$ )과 스트레스( $\beta = .14, p < .01$ )를 통하여 학습된 무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직접적인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동의 성은 사회적 자기능력지각( $\beta = -.13, p < .05$ )을 통하여 학습된 무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직접적인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학업영역 자기능력지각( $\beta = .18, p < .01$ ), 사회적 자기능력지각( $\beta = .12, p$

〈표 3〉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 대한 각 변인의 인과효과

독립변인	인과적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전반적 자아가치감	-.25	-.09	-.34
스트레스	.33	.	.33
학업영역 자기능력지각	-.30	.	-.30
사회영역 자기능력지각	-.11	-.05	-.16
아동의 연령	.	.11	.11
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	-.10	-.10
모의 통제적 양육태도	.	.03	.03
아동의 성	.	.01	.01

< .05), 전반적 자아가치감( $\beta = .15, p < .01$ )을 통하여 학습된 무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직접적인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모의 통제적 양육태도는 스트레스( $\beta = .10, p < .05$ )를 통하여 학습된 무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직접적인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각 변인이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 미치는 직접·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아동 행동과 적응의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학습된 무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아동의 연령, 성, 자기능력지각, 스트레스와 모의 양육태도를 선정하고 이들 변인들 간의 상호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 대상은 부산시내의 공립 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6학년 및 공립 중학교의 2학년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 모두 740 명으로 하였으며 어머니 배경 변인을 묻는 문항과 학습된 무력감 척도, 자기능력지각척도, 스트레스 척도, 양육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통계 처리는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과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과 자기능력지각의 모든 하위영역은 부적 관계를 보여 아동이 자기능력을 낮게 지각할수록 학습된 무력감은 높음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각 하위영역의 자기능력을 낮게 지각할수록 학습된 무력감이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이경님, 1998)와 일치하였다. 또한 자아 평가가 학습된 무력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최보가와 손낙주, 1998)와도 일맥상통하였다. 이는 아동이 자신의 능력을 낮게 지각할수록 자신감과 효능감을 상실하게 되며 이로 인해 결국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를 형성하게 되어 학습된 무력감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은 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부적인 관계를 보여 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학습된 무력감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거부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을 높이며 수용적 양육태도가 학습된 무력감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연구(손낙주와 최보가, 1996 ; 정수자, 1995)와 일치하였다. 한편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은 연령과는 정적인 관계를 보여 연령이 많을 수록 학습된 무력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검증결과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아동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아동 후기에서 청년초기에 걸쳐 학습된 무력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간의 학습된 무력감의 발달 경향에 관한 연구(이경님, 1998)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아동 후기에서 청년 초기에 걸쳐 학습된 무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의 이유로는 이 시기의 시기적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즉, 대체적으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그 이전의 시기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인간 관계 및 실제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서 청소년들은 자아에 대하여 엄격하게 평가하고 타인으로 부터의 평가에 민감하여 지므로 자신감이 결여되고 실제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은 스트레스와 정적인 상관 관계가 나타나 아동이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학습된 무력감이 높아짐을 보였다.

둘째,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은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업영역 자기능력을 낮게 지각할수록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낮을수록 사회영역 자기능력을 낮게 지각할수록 높게 나타났고 이들 변인들이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54%였다. 이들 변인중 스트레스가 학습된 무력감에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지각한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된 무력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스트레스는 학습된 무력감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스트레스와 학습된 무력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를

국내에서는 찾지 못하여 직접적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통제 불가능한 스트레스는 우울, 불안 및 무기력 증상의 주요 원인이라는 연구(Weiss, 1971)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면서 아동 자신이 이를 통제 불가능하다고 인식되면 지금까지의 자신에 대한 가치감과 믿음이 끝난 것으로 생각되어 학습된 무력감이 높아진다는 주장(신기명, 1996), 아동이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우울 또는 학습된 무력감의 반응을 보인다는 주장(Elkind, 1981)을 지지한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학습된 무력감에 중요한 변인임을 볼 때 아동으로 하여금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게 함은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습된 무력감도 예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학업영역의 자기능력을 낮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아동 중기 이후 학습된 무력감에 학업적 자아 개념이 중요한 부적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이경남, 1998; 이순자, 1993; 정수자, 1995; Di Tosto, 1992)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들의 일치로 볼 때 학업영역의 자기능력지각은 아동의 효능감, 우울감에 주요한 요인으로서 학업영역의 자기능력지각이 낮을수록 학습된 무력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의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낮을수록 학습된 무력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아동의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학습된 무력감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경남, 1998)와 일치하였다. 사회영역의 자기능력지각도 학습된 무력감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된 무력감에 사회영역의 자기능력지각이 중요한 변인임을 밝힌 선행 연구(이경남, 1998)와 일치하며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지각이 아동행동과 적응의 중요한 변인임을 지적한 연구(한미현, 1996)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한편 아동의 스트레스를 종속 변인으로 한 결과 아동의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낮을수록 사회영역의 자기능력지각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일수록 스트레스 수준 점수는 높았으며 이들 변인들의 스트레스 수

준에 대한 총 영향력은 21%였다. 이중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스트레스 수준에 중요한 변인이라는 선행 연구(김경자, 1994; 박성옥 등, 1996; 한종혜 등 1997)와 일치하였다. 또한 아동의 자아가치감이 낮을수록 우울성향이 높다는 연구(한종혜, 1994)와도 맥락을 같이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영역의 자기능력을 낮게 지각할수록 스트레스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의 지지가 낮다고 지각할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한 연구(박성옥 등, 1996)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일수록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적절한 통제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바람직한 성품에 도움이 되나(Baumrind, 1991) 엄격한 통제는 오히려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며 나아가 부적응을 야기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은 높아졌다. 본 연구에서 추후검증한 결과 스트레스 수준은 초등학교 4학년, 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각 학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이유로는 대체로 아동 중기에서 청년 초기에 걸쳐 아동은 점점 더 넓은 인간관계 및 실제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성장 발달과정에서 더 많은 적응이 요구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능력지각 각 하위영역을 종속 변인으로 한 결과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운동영역을 제외한 학업, 사회, 신체외모, 행동영역의 자기능력지각과 전반적 자아가치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아동은 학업, 사회, 신체외모, 행동영역의 자기능력과 전반적 자아가치감을 높게 지각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수용적이며 애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존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김경연, 1987; 이경남, 1997; Driesler, 1993) 바람직한 적응에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주장(Baumrind, 1991)과 일치한다.

셋째, 회귀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습된 무력감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의 크기를 보면 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총 인과효과의 크기를 비교하면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학습된 무력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스트레스, 학업영역 자기능력지각, 사회영역 자기능력지각, 아동의 연령, 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모의 통제적 양육태도, 아동의 성의 순으로 학습된 무력감에 인과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자아가치감은 학습된 무력감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쳐 이것이 다시 학습된 무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도 나타나어 학습된 무력감에는 인과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에 대한 기대도 낮다고 지각하는 아동은 학업, 사회적 성취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 결과가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믿는다. 이로 인해 이들 아동은 환경에 대하여 수동적이 되며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와 행동을 쉽게 포기하여 무기력하여 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자신에 대한 낮은 가치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더한층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학습된 무력감에 가장 큰 인과효과가 나타난 결과는 자아 평가가 학습된 무력감에 강한 부적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정수자, 1995 ; 최보가와 손낙주, 1998)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일치된 결과들에 의하면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을 증대하고 예방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인이 됨을 시사한다. 즉 학습된 무력감은 쉽게 치유되는 특성은 아니지만 치유가 불가능한 특성도 아니므로(Dweck & Leggett, 1988) 아동의 효율적인 전반적 자아가치감을 높일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은 학습된 무력감을 경감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학업영역의 자기능력지각은 학습된 무력감에 직접적인 효과만 나타났을 뿐 간접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이 학업능력에 대한 낮은 지각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어 스트레스를 매개 변인으로 한 간접효과를 기대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간접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아동 스스로 자신의 학업 능력이 우수하다고 혹은 저조하다고 지각하는지는 스트레스와는 별 관계가 없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선행 연구를 찾지 못하여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본다. 사회영역의 자기능력지각은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매개 변인으로 하여 간접효과도 나타났다. 즉, 아동이 또래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함은 학습된 무력감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 스트레스의 경감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어 아동의 사회영역의 자기능력지각이 높을수록 학습된 무력감은 예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연령은 학습된 무력감에 직접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스트레스를 매개 변인으로 하여 간접효과를 보였다. 이에 대한 선행 연구를 찾지 못하여 단정적인 해석은 어려우나 학습된 무력감이 단순한 성숙적 요인으로서보다는 아동이 성장하면서 부정적인 환경의 영향으로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낮아지거나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게 됨으로 인하여 형성되지 않나 본다.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학습된 무력감에 직접적 효과는 없었지만 학업 및 사회 영역 자기능력지각, 전반적 자아가치감에 영향을 미쳐 이들을 매개 변인으로 하여 학습된 무력감에 간접적 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아동의 학업 및 사회영역의 자기능력지각과 전반적 자아가치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다시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학습된 무력감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학습된 무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자아 평가를 매개 변인으로 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최보가와 손낙주, 1998)와 일치하였다.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는 학습된 무력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발견되지 않았고 스트레스가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여 간접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일수록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은 높아지며 다시 이러한 부정적 효과가 학습된 무력감을 높임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성은 사회영역의 자기능력지각을 매

개 변인으로 하여 학습된 무력감에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된 무력감의 성차이는 없다는 대부분의 연구 결과(이경남, 1998; Monaco & Gentile, 1981)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아동의 성이 학습된 무력감에 나타난 간접 효과는 비교적 아주 약한 효과였기 때문에 그 일치여부를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본다. 단지 사회영역의 자기능력지각을 종속 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하여 남아보다는 여아가 사회영역 자기능력지각이 낮았다는 두 번째의 결과에 비춰 볼 때 사회영역의 자기능력지각이 낮은 여아들이 학습된 무력감도 더 높아질 수 있지 않나 한다. 그러나 이에 관련된 많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일반화의 여부를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스트레스는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낮을수록, 사회 영역 자기능력을 낮게 지각할수록, 모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일수록, 아동의 연령이 많을수록 높았으며 이들 변인들은 스트레스를 21% 설명하였다.

둘째,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은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영역 자기능력을 낮게 지각할수록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낮을수록 사회영역 자기능력을 낮게 지각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은 학습된 무력감을 54% 설명하였다.

셋째,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 미치는 직접적 인 효과의 크기를 보면 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 미치는 총 인과효과 크기는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아동의 스트레스, 학업 영역 자기능력지각, 사회 영역 자기능력지각, 연령, 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모의 통제적 양육태도, 아동의 성의 순으로 학습된 무력감의 인과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스트레스와 학업 영역 자기능력지각은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 직접 효과만 나타났다.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사회 영역 자기능력지각은 직접 효과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매개 변인으로 하여 아동의 학

습된 무력감에 간접효과도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은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스트레스를 매개 변인으로 하여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 간접효과만 나타났으며 직접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학업영역, 사회영역의 자기능력지각과 전반적 자아가치감을, 모의 통제적 양육태도는 스트레스를, 또한 아동의 성은 사회영역 자기능력지각을 매개 변인으로 하여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 간접효과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학습된 무력감에 영향을 주는 가족환경 변인으로서 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내적 변인으로서 스트레스와 자기능력지각을 선정하고 이들의 상호관계 및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런데 모의 양육태도 외에 가정 분위기와 같은 가정환경과 내의 통제 신념과 같은 아동 내적 변인도 중요한 변인이므로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변인들이 포함된 복합적 모형을 분석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국외에서는 학습된 무력감을 예방하고 경감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분석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습된 무력감은 예방되고 치유될 수 있는 특성이므로 국내에서도 학습된 무력감을 증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분석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에 그치고 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 행동의 인과관계를 보다 상세히 규명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요청된다.

**주제어** : 학습된 무력감, 스트레스, 자기능력지각, 모의 양육태도

## 참 고 문 헌

강성희(1991). 아동의 스트레스 생활 사건과 적응에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문제 해결기술의

- 역할,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연(1987). 부모의 아동평가, 자아존중,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경자(1994). 아동의 자기역량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일(1993). 부모의 수용과 청소년의 성격발달, 정신건강연구,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12, 82~109.
- 김희화(198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 : 환경변인 및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성옥, 이영환, 한중혜(1996). 아동의 사회적지지 및 역량지각과 스트레스와의 관계연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의 실효성 검토 및 모형개발 논문집, 한국영유아 보육학회, '96 추계학술대회, 171~183.
- 손낙주, 최보가(1996).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자기평가가 학습된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3), 245~257
-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서울 : 학지사.
- 신기명(1996). 학습 무기력, 서울 : 배영사.
- 신기명(1990). 학습 무기력척도 개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혜정(1993).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관계망지지 지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남(1997).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외통제신념과 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대학원논문집, 22집, 동아대학교 대학원, 403-424.
- 이경남(1998).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과 자기능력지각과의 관계, 생활과학연구논문집, 제6집, 동아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35~58.
- 이순자(1993). 국민학교 아동의 학습 무기력 수준과 학업 성취에 대한 성향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수자(1995). 가정변인과 학생변인이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효과의 경로분석,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보가, 손낙주(1998). 가정환경, 아동의 자아평가와 학습된 무력감간의 인과관계, 가정학회지 36권 4호, 대한가정학회, 1998, 121~135.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미현, 유안진(1995). 한국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3(4), 49~64.
- 한중혜(1994). 아버지와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아동의 자기역량지각 및 우울성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 학회지 창간호.
- 한중혜, 박성옥, 이영환(1997). 친구, 가족, 교사의 사회적지지 및 자아가치감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한국생활과학회지, 6(1), 15~27.
- 홍정현(1990). 아동의 학습 무기력 및 개념화 양식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Abramson, S. Y., Gender, J. & Seligman, M. E. P.(1980).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An attributional analysis, In Garber, J., & Seligman, M. E. P.(Eds), *Human Helplessness*, N. Y : Academic Press.
- Aloyo, R.(1991). Perceived family of origin experience, learned helplessness, locus-of-control, and self-concept in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 Baumrind, D.(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 56~95.
- Di Tosto(1992). Reformulated attribution theory of learned helplessness : The relation among attribution style, childhood depression and achiev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ton Hall Uni. School of Education, MZ.
- Driesler, K. J.(1993). Self-concept, locus of control, and the home environment as predictors of reading comprehension in



- eighth-grad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The University of Tennessee.
- Dweck, C. S. & Leggett, E. L.(1988). A social-cognitive approach to motivation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95, 256~273.
- Eisenberg, N.(1990). Prosocial development in early and middle-adolescence. In R. Montemayor, G. R. Adams, & T. P. Gullotta(Eds.).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 A transitional period?* Newbury Park, CA : Sage.
- Elkind, D.(1981). *The Married Child : Growing Up Too Fast Too Soon*. Reading, M. A. : Addison-Wesley.
- Erickson, E. H.(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 W. W. Norton.
- Fincham, F. D., & Cain, K. M.(1986).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 A developmental analysis, *Developmental Review*, 6, 301-333.
- Haapasalo, J. & Trembly, R. E.(1994). Physically aggressive boys from age 6 to 12. Family background, parenting behavior, and prediction of delinquency.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62(5), 1044~1052.
- Harter, S.(1982). Children's understanding of multiple emotions : A cognitive developmental approach, In W. F. Overton(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Hillsdale. N J : Erlbaum.
- Harter, S.(1985). Competence as a dimension of self-evaluation : Toward a comprehensive model of self - worth. in R. C. Leahy(E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Orlando. FL : Academic Press.
- Harter, S.(1988). Developmental process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in T. D. Yawky & J. E. Johnson(Eds.). *Integrative processes and socialization : Early to middle childhood*. Hillsdale, W. J : Erlvassm.
- Healy, D. M., Minors & Waterhouse, J. M.(1993). *Shiftwork, helplessness and depression*, North Wales Hosp, Academic Subdepartment of Psychological medicine, Denbigh, Wales.
- Henniger, M. L.(1994). Play : Antidate for Childhood Stress. *Early Development and Care*, 105, 7~12.
- Hetherington, E. H., & Parke, R. P.(1993). *Child psychology : A contemporary viewpoint(4th ed.)*, N. Y: Metrawhill.
- Licht, B. G., & Dweck, C. S.(1983). Sex difference in achievement orientations : Consequences for academic choices and attainments, In M. Maryland(Ed.), *Sex difference and schooling*, london : heineman.
- Matherly, T. A.,(1985). The distortion of self-perception by learned helplessness, *Journal of Psychology*.
- Monaco, N. M., & Gentile, J. R.(1987)., *Cognitive developmental level, gender, and the development of learned helplessness on mathematical calculation and reasoning tasks*, State U, New York, Coll at Fredonia.
- Rohner, R. P.(1986). *The Warmth Dimension*.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
- Seligman, M. E. P(1975). *Helplessness : On Depression, Development and Death*. San Francisco : W. H. Freeman.
- Young, M. H.(1993). *Parenting Style and Child behavior problems : A longitudinal analysis*, Doctoral Dissertation, Utah State University, Ann Arbor MI :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 Weiss, J. M.(1971). Effects of Coping Response on Stress. *Journal of Comparative and Physiological Psychology*, 65, 251-26.